

코아로직, DDI전문회사 신규자회사로 편입

코아로직(대표이사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전문업체인 와이드칩스(대표 정호기)를 자회사로 편입, DDI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와이드칩스의 TFT LCD 및 AM OLED용 DDI 분야 기술력과 코아로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술력을 융합한 최적의 제품들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기수 코아로직 사장은 "코아로직의 주력사업인 모바일 AP에 모바일 DDI 사업을 추가해 사업다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모바일 DDI 사업은 이미 시장성이 입증되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기술 부문에서도 모바일 AP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코아로직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아로직은 모바일 DDI 사업 진출을 통해 장기 비전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 전문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제품 및 사업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고속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스플레이칩스, 세계 최초로 DDC기능 통합 OLED 구동칩 개발

디스플레이칩스(대표이사 이원기·박성휘 www.displaychips.co.kr)는 세계 최초로 DDC(DC-DC 컨버터) 기능을 통합한 수동형 OLED 구동칩 'DC31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통합칩을 사용하면 별도의 DDC칩 없이 OLED를 구동할 수 있어 모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모듈 제조비용의 10~15% 절감이 가능하다. 수동형 OLED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16V의 고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OLED업계는 모듈에 구동칩과 함께 DDC칩을 별도로 장착해 왔다. 특히 별도 장착해야 하는 DDC칩은 현재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DDC 내장 통합칩은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엠텍비전, MMP(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개발

엠텍비전(대표이사 이성민 www.mtekvision.com)은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화이트TV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MMP(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타이거V'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휴대폰에 적용할 경우 캠코더급으로 동영상을 녹화해 화이트TV로 감상할 수 있으며 3G 휴대폰 기능인 영상통화도 휴대폰 화면이 아닌 화이트TV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엠텍비전은 이 제품을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해 내년 700만개, 2007년 2000만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엠텍비전의 강세인 상무는 "최고 수준의 동영상 압축 기술을 적용해 휴대폰의 멀티미디어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며 "휴대폰 개발업체에 손쉬운 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폰 개발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티그런트, 지상파DMB RF튜너 양산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대표이사 고범규 www.integrant.com)는 지상파 DMB 수신용 RF(고주파) 튜너(ITD3010)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본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튜너 양산에 돌입함에 따라 자사의 RF칩을 적용해 단말기 개발 및 출시를 준비중인 40여 개 DMB폰, 노트북PC용 USB타입 수신기, DMB전용 단말기, DMB겸용 네비게이션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적기에 부품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사업본부장은 "위성DMB로 검증된 기술 및 고객지원능력을 바탕으로 지상파DMB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전력 RF CMOS 기술은 이후 일본의 원세그 휴대TV 시장, 유럽의 DVB-H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지상파DMB 칩시장 90% 점유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서승모 www.cnstec.com)는 자사 지상파DMB용 멀티 미디어 칩인 '넵툰'이 2005년 10월 말 기준으로 20만대 가량의 단말기에 장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지상파 DMB 단말기 22만 여대 가운데 90%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집계대로라면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지상파DMB 멀티미디어 칩 시장에서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아날로그디바이스·브로드컴, 일본 르네사스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칩 회사를 제치고 이 분야 시장을 거의 석권하며 1위에 올랐다. 지상파 DMB 단말기에 채택되는 씨앤에스의 '넵툰' 칩은 사속 150 km이상의 고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DMB전용 멀티미디어 칩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세계 최초로 구현된 제품이다. 서승모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사장은 "현재 넵툰은 국내 위성, 지상파 DMB 및 유럽 DVB-H, 일본 ISDB-T 등 세계적으로 준비중인 있는 디지털이동방송 시장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각국 지상파 DMB 서비스 추이에 맞춰 수출길도 서서히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소프트, PCB 해석 소프트웨어 출시

안소프트(대표이사 금용조 www.ansoft.co.kr)는 인쇄회로기판(PCB)전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에스아이웨이브 V3'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자장 해석 소프트웨어인 에스아이웨이브에 패키지를 결합한 해석과 전자장 방사 문제 해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PCB 위에 패키지를 올려놓은 상태의 전체 보드를 해 석하기 때문에 보드와 패키지를 가로지르는 신호 해석이 가능하며 PCB를 통해 방사된 전자파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소프트 관계자는 "이 제품은 보드 및 패키지를 결합해 정확한 동시 스위칭 잡음과 간섭 및 커플링에 대한 해석, 파워 그라운드 비운스, 공진 해석이 가능하고 전자파 차폐 및 하우징 구조를 포함한 시스템 해석에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